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관념의 누더기 벗어버릴 수 있어야”

마음공부하는 이의 자세

문 저는 남달리 집착이 강하고 그러다보니 번뇌도 많습디다. 어떤 분이 마침 마음공부를 해보면 번뇌도 다스려지고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제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법회에도 참석해보고 나름대로 집착을 떨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부가 시원치 않습니다. 마음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라 할까 혹은 마음가짐이라 할까, 아무튼 도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는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습디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제일이요, 이만 하면 잘 나가는 게 아니냐며 사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차원에서 벗어나 진화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마음공부를 해서 마음으로 차원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게들 살고 있습니까? 수억억 지나는 세월 속에서 집착이다, 관습이다 그런 것에 얽매어 온종 누더기가 되었던 말이지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그때 그때 대처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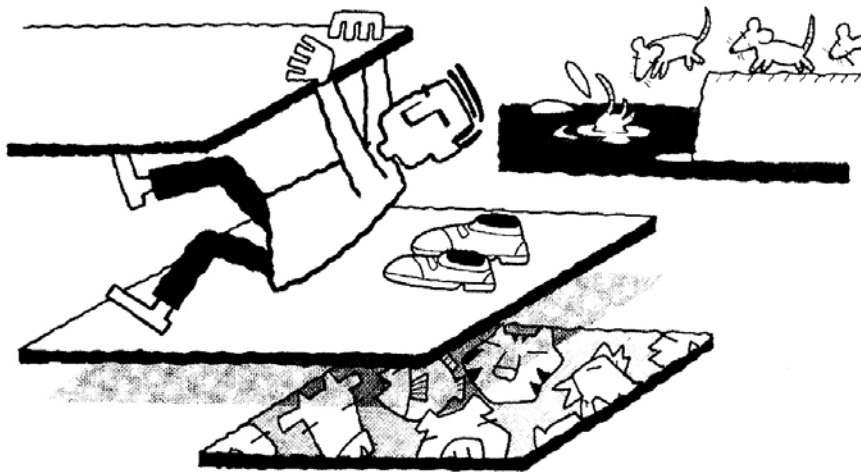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왜 괴롭게 사느냐?”

관습·집착 붙잡고 안간힘쓰지 말고 나온자리에 되놓고 가세요”

답 마음을 제발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뜻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생활이 재료니까 그걸로써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만 다들 생각이 모자라니 그게 안타깝군요.

지금 각 종교를 보아도 그렇고 사찰을 보아도 그렇고 대부분 타의에서 구하려 하지 자의에서 구하려 하질 않습디다.

물론 말로는 ‘너 자신부터 알아라’ 합니다만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습디다.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그러기에 매번 수레 바퀴 돌듯이 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무슨 분리가인 하는 기계에다 물건을 넣고 돌리면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쪼개지듯이 우리들의 영도 차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자동적이요.

하천세계로 떨어질 것은 그러로 떨어지고 중천세계 같은 중천세계로, 상천세계에 해당될 영은 상천세계로 분리가 됩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이 자동적이요.

그러니까 하천세계로 떨어진 생명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먹고 먹히는 짐승들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고통스럽겠는지... 하지만 우리 중천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기가 막힙디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어느

못하니까 누더기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항상 말씀 드렸죠, 사람 사는데 발자국 떼어 놓는 거와 같아서 한 발 자국 떼어 놓으면 한 발자국 없어지고 또 한 발자국 떼어 놓으면 또 한 발자국 없어진다, 바로 공해서 그렇다, 본래로 고정된 게 없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정된 게 없으니까 그냥 놓고 가는 거다, 그냥 놓고 가니까 그냥 여여한 거다, 그냥 여여하니까 아무 것도 붙을 게 없다고 그랬던 겁니다. 현대 그럴 골이 들지 않는 거예요. 관습 때문에, 집착 때문에 아예 골이 들으려 하질 않는단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누더기누더기 달라 붙은 그 관념의 누더기가 그렇게나 소중하니 말입니다.

그 누더기만 벗어 버리면 그렇게 여여하고 그렇게 좋은 세상이 따로 없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여여하고 걸릴 게 없이 돌아간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는 대로 말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거듭 거듭 말을 해줘도 기쁘게 살아가는 커녕 조그마한 일까지도 굶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면서 그냥 아웅다웅,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려 고 합니다. 그러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 더구나 저 하천세계의 생명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입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짐승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차원대로 짚잡없이 나누

“밖으로 찾으려면 깨우칠 길 막막해요” 안팎에서 다가오는 경계 다 공부재료

어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처될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났 습니다. 참내에 이 누더기를 벗어 버리기 만 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그대로 놓고 가라, 본래로 보는 것 듣는 것 가고 오는 게 다 공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로 살아가, 아니 초초살이로 살아가 그렇게 누누이 일러 주어도 누더기를 벗어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인데 살아가면서 오는 대로 타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밖에서 닦쳐오든 그대로 굴러 넘겨라 이 거죠. 그러면 싱그럽고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괴롭게 사느냐?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어 놓고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지요. 가령 어떤 문제 하나에 집착을 하고 그게 습이 되어서 앙금처럼 가라 앉게 되니까 때려해도 때리지질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타치는 대로 그 자리에다 되 놓아라, 붙잡고 애를 쓰거나 떼어 내겠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본래가 공한 것이니까, 본래 고정된 건 없으니까 공한 자리에서 나온 거 공한 자리에 놓고 가라 이 겁니다.

나도 여러 해를 두고 그렇게 실험을 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나온 자리에 되

놓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진짜로 믿는다면 됩니다.

죽으나 사나, 당장 하늘이 무너져 내린 다 하더라도 결결 웃고 놓을 수 있을 만큼 믿는다면 누더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금세 ‘아이구 이 말하면 그냥 그냥 살 수 있는데 그런 공부하는 해서 뭘해, 죽으면 그만일걸’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인 걸요.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진리라고 할 것도 없겠지요.

참고로 옛날 얘기 한가지 해드리지요.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한 마을로 들어가니까 벽에다 써 놓기를 ‘내가 듣기 싫다고 할 때까지 옛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시위로 삼겠노라’고 했더랍니다. 그걸 보고 아나그네가 찾아가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고 시작했습니다.

“어느 마을 부잣집 공간에 큰 무리의 쥐들이 살고 있었습디다”

“그래서?”

“그런데 그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디다”

“그래서?”

“그래서 쥐들이 굶주림을 면하려고 강 건너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디다”

“그래서?”

“그해 할아버지 쥐가 앞장을 서고 할머니 쥐가 그 뒤를 따르면서 길을 떠났습디다”

“그래서?”

“할머니 쥐가 할아버지 쥐의 꼬리를 물고 그 뒤를 따라 뛰어습디다”

“그래서?”

“그 뒤로 아들 쥐가 꼬리를 물고 따라서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뛰어드는 얘기를 사흘 내리 계속했더랍니다. 그래도 듣기 싫다는 말을 안하니까 이 나그네는 열흘을 넘기고 보름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똥덩’하는 얘기를 이어 나갔습디다.

결국은 딸을 차지하고 사위가 됐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간다, 그러니 어디에 끊어질 사이가 있다 하겠느냐, 끝간데 없이 돌아가니 어디에 이어졌다 떨어졌다 할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크다 작다는 어디 있고 잘나고 못나고는 어디 있는가, 바퀴가 돌아가듯 돌아가는데 먼저 붙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육은 지수화풍으로 돌고 돌며 영은 하천세계 중천세계 상천세계를 돌고 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살았다 하면 죽었고 죽었다 하면 살았고... 이것은 이렇듯 영원토록 굴러가며 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종종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물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52)

당신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법을 내놓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마음으로 써 내가 만 가지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만 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또 마음 이기에 만 가지 사람이 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마음이면 우주를 조절하고 세상을 조절할 수도 있다. 세계평화, 남북통일, 개인적으로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도 조절할 수 있다.”

사람마다 모습이 천차만별이듯이 마음 씀씀이도 각각각색이다. 한가지 사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염려한다. 반 컵의 물을 보면서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사물에 대한 평가가 정반대로 갈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수천 수만의 층(層), 등급이 있다고 말한다. 차원이 제각각이라는 뜻이다.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 나쁘게 쓰는 사람, 넓게 쓰는 사람, 좁게 쓰는 사람... 사람마다 생각의 차원이 다르고

인품에 차등이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의 씀씀이가 다른데서 비롯된다. 고로 마음 한번 일으키는 게 삶의 질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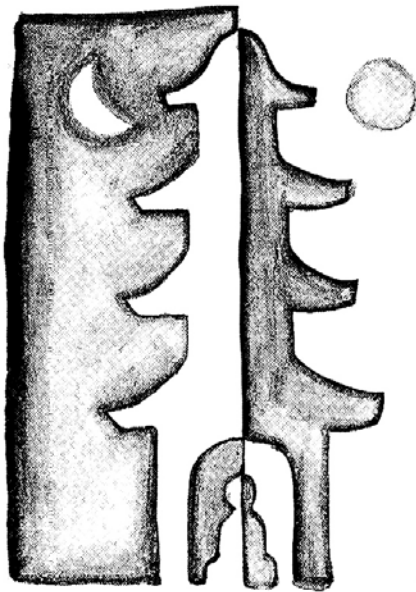
마음에 수천 수만의 층이 있다해서 그 본바탕까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본바탕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갖춰진 능력 또한 같다.

다만 쓰임새가 다를 뿐이지 본래 타고난 응용능력은 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나 자유자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본래는 다르지 않으니 마음의 원심력·구심력은 제불보살의 능력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로 한 생각 일으키기에 따라서는 질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가난을 면할 수도 있으며 온갖 고통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무한 능력을 지녔다는 말이다.

마음의 힘을 말할 때 무한의 자력을 가졌고 무한의 광력, 전기력, 통신력을 구비했다고 한다.

무한의 자력이라면 무엇이든 끌어올 수 있는 힘이다. 무한의 광력이라면



빛보다 더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무한의 전기력이라면 어디에 감응할 수 있음이다. 무한의 통신력이라면 멀고 가깝다 할 것이 없이 두루 통한다는 뜻이다.

마음은 그런 힘을 종합해서 가진, 그야말로 무한에너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통하지 않을 게 없고 미치지 못할 게 없으며 이루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전지전능이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모든 중생에게 본래 그러한 전지전능의 힘이 주어져 있다면 달리 무엇을 염려하라. 누구나 태어날 때 이미 부자유, 온갖 권세를 다 갖췄으며, 생명력으로 넘치고 있는 데 왜 사서 걱정을 하며 뭐가 좋아서 끝장을 하겠는가.

다만 믿질 않고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믿질 않으니 힘이 없고 모르고 있으니 쓰질 못한다는 얘기가. 내 집에 보배를 잔뜩 쌓아 두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을 줄 모르니 밖으로 구걸행각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못나고 안타까운 일이라.

본래 기적이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완전한 능력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적은 애저녁에 기적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음을 외면하고 있기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조그마한 능력 앞에서 눈을 비비게 된다.

마음이 앞서가면 어떤 보화라도 뒤를 따른다. 마음이 앞서가면 우주 법계가 뒤를 따른다. 그래서 각자 마음의 능력은 이 세상을 다 준다해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인 것이다. 더구나 마음은 물질처럼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다. 퍼내어도 퍼내어도 줄어드는 법이 없으며 오히려 쓰면 쓸수록 더욱 날이 서는 칼처럼 잘 들게 된다.

마음엔 자력·전기력·광력·통신력이 두루 갖춰져 있으므로 마음은 오싹통에 자재하다.

그걸 믿자. 나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고

협찬: 조하원·박성례